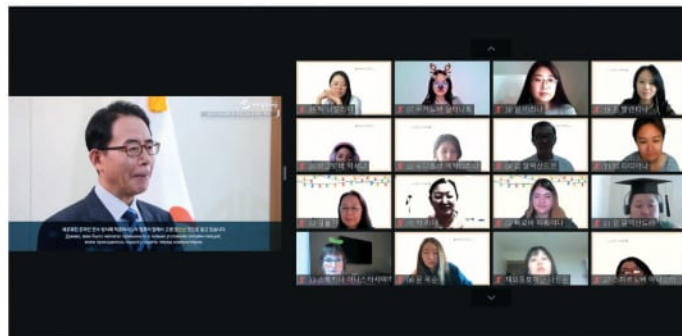




특집 _ 동포작가 등용문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발표
기획 _ 한국 정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화제 _ '백두산 호랑이' 태극기 두르고 100년 만에 귀환



세계가 한국을 꿈꾸게 하는 힘!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위인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나라는 국방도, 경제도 아닌 문화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단군 신화로 비롯되는 아주 먼 옛날부터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가 언제나 눈부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수백 년을 지켜온 문화재가 약탈당하고 수천 년을 이어온 풍습이 부정당하는 아픔을 극복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문화는 이제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주류 문화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배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 82개국 234개소 세종학당을 운영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보다 훨씬 앞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재외동포들입니다. 멕시코, 하와이, 쿠바 등에 정착한 재외동포 1세대는 사탕수수밭에서 혹독한 노동을 견디며 한인 사회를 형성해나갔고, 그들이 해외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사랑하고 지켜낸 덕에 지금처럼 한국 문화가 널리 멀리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강현화

전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연세대 국문과 교수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에 선구자였던 재외동포가 어느덧 750만에 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동포 문화를 꽃피웠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를 이끌어갈 한인 3·4세대 대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한인 동포사회가 문화적 전통성을 계속 유지하고 민족적 뿌리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감대가 맞물려 세종학당 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작년 10월 업무 협약을 맺고 한글학교에 다니는 재외동포 차세대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올해는 CIS와 일본 지역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을 위해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누리집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이 한국과 단절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해외는 한국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어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이 염려됩니다.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삶이 되돌아오길 희망합니다. 그때까지 동포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 02 권두언 세계가 한국을 꿈꾸게 하는 힘!
강현화 전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 연세대 국문과 교수
- 04 특집 동포작가 등용문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발표
- 06 기획 한국 정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 08 화제 '백두산 호랑이' 태극기 두르고 100년 만에 귀환
- 10 글로벌 코리안 이영희 세계국제결혼여성총聯 회장 · "각국에 지회 확장"
이영호 사할린주 위생역학센터 포로나이스크 지부장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자 삶, 영화에 담은 세실리아 강 감독
- 12 한민족 공감 "한국이 김치 종주국" · 미국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
- 14 유공 동포 '한상 대부' '미주한인사회 기부왕' 홍명기 이사장 별세
- 15 주목! 차세대 日방해 맞서 가상소녀상 개발 · 한인2세 "100만 곳에 세우자"
- 16 동포소식 '아쉽지만 잘 싸웠다' · 日 교토국제고, 고시엔 결승 문턱 분투 외
- 19 동포 캘린더 네덜란드 헤이그서 이준 열사 추모식 열려 외
- 20 지구촌 통신원 1 인도네시아 진출은 대기업만? · 스타트업도 '수두룩'
- 21 지구촌 통신원 2 백신 못맞던 이집트 한인들, 대사관 요청으로 '특별접종'
- 22 OKF 뉴스 세계 한인 정치인들 모국서 한반도 평화 위한 역할 모색 외
- 24 유관단체 소식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화 · 김정숙 여사 한인 여성 격려 외
- 25 기고문 지구촌 그리팅맨의 메시지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 전 MBC 중남미지사장겸 특파원
- 26 재단공지 12월 1~9일 '2021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실시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포작가 등용문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발표

시 · 단편소설 · 체험수기 · 글짓기 · 입양수기 부문 37편 선정



재외동포 문인의 산실이자 동포작가 등용문인 재외동포문학상이 올해로 23회째를 맞았다. 재외동포재단은 8월 26일 코리아넷(www.Korean.net)을 통해 수상작 37편을 발표했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1999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문학상은 수상 작가가 동포사회 뿐만 아니라, 고국의 문단에 등단하여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게 되면서 ‘작가 등용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시 부문 대상에 최승현의 ‘메주’

올해는 54개국에서 모두 635편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국내 문단에서 존경받는 문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상작을 가렸다.

시 부문은 러시아 동포 최승현 씨의 ‘메주’가 성인 시부문 대상자로 뽑혔다. 최 씨의 작품은 1년 넘게 투병 중인 어머니의 모습을 메주의 이미지로 정밀하게 묘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단편소설 부문은 재미동포로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이월란 씨의 ‘길몽’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유타주립대에서 비교문학을 전공한 이월란 씨는 ‘제13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단편소설 부문 대상 수상자로 뽑혀 화제가 됐다.

이씨는 2009년 계간 ‘서시’ 신인상으로 등단했고 경희해외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에 입상했다. 시집으로는 ‘모놀로그’ ‘흔들리는 집’ ‘The Reason’ ‘오래된 단서’ 등이 있다.

체험수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응모한 송영일의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입양수기 부문 대상은 미국 스펜서 리 렌필드 씨의 ‘My Adopted Mother Tongue’가 수상했다. 리 씨는 예일대 박사과정에서 비교문학을 전공하며 한국 문학과 한국 작가들을 연구하고 있다.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한 ‘한글학교 특별상’은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한글학교, 미국 남가주한국학원(KISC) 남가주글렌데일한국학교, 태국 치앙마이한글학교가 수상했다.

이밖에 단편 소설 부문佳作에 뽑힌 재미동포 1.5세 작가인 배수영 씨는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지부 회원으로 '제8회 시애틀문학상' 수필 부문 우수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번역가로도 활동하는 배 씨는 수상과 관련, 동포언론에 "그동안 삶에서 나와 마주치고 소통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더불어 정체되지 않고 조약돌 위를 흐르는 냇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작가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과佳作 등 총 30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거주국 관할 공관에서 연말에 열릴 예정이다. 한글학교 2개교에는 상패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심사위원들, "수상작 문학적 상상력 뛰어났다"

재외동포문학상 심사위원은 시인 신경림·신달자, 소설가 오정희·은희경 등 한국 내 문학적 인사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한결 같이 "해마다 응모작의 수준이 오르는데다 문학적 상상력도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드러난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동포문학의 범주를 벗어나 작품들도 대거 눈의 띄었다"고 평가했다.

오정희 소설가는 "이산의 아픔을 겪어온 이야기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소설적 재미가 녹아 있는 작품이 많이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고, 신달자 시인은 "고국을 떠난 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과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이 많았다. 동포 문인 작품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서적 감정과 언어를 잊지 않은 응모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심사 소감을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특히 "오랫동안 모국을 떠나있던 동포들이 한국어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사용했다는 점이 반가웠다"고 평가했다.

아쉽게 수상은 못했지만 재치있는 글솜씨와 진중한 주제를 다룬 작품도 눈에 띄었다며, 심사위원들은 "글은 진정성과 진솔함이 돋보일 때 생명을 얻는다. 기교 부리지 않은 작품과 대상에 대한 거리를 유지한 작품들이 높

은 점수를 받는다"고 조언했다.

수필 심사위원들은 총평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애환을, 만져질 것 같은 솜씨로 묘사한 글을 보면, 심사를 한다는 입장을 잊고 한없이 빠져들곤 했다.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모국어로 쓰는 문학이란 사실, 이 하나로 충분히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문학상은 23년의 역사와 저명한 심사위원, 무엇보다도 모국어와 한국정서를 사랑하는 많은 동포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명실공히 훌륭한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며 "특히 금년에는 시 부문에서佳作를 추가 선정할 정도로 여러 나라에서 우수한 작품이 많이 응모되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내년에는 수상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상작품집은 10월 경 책과 전자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재외동포재단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1.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에는 54개국에서 모두 635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2. 1999년부터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재외동포문학상' 공모는 동포작가들의 문단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았다.
3. 17회 재외동포문학상 심사위원들, 문학상 심사위원으로는 각 분야별 문단의 중진위원이 매년 참가하고 있다. 사진은 17회 문학상 심사위원으로 앞줄 오른쪽에서 왼쪽 시계방향으로 복거일, 오정희, 신달자, 신경림, 조정권, 구효서, 이경자, 박상우, 서하진, 김형경, 최인석.
4. 시 부문 대상 수상한 이월란 시인

한국 정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특별공로자 대우, 충북 진천서 적응 교육 후 정착 지원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월 26일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로 국내 입국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직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90여 명을 국내로 입국 시켰다. 정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들어온 이들은 아프간에서 한국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병원, 한국 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일하며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한 조력자라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 측면에서 난민보다는 더 배려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0일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한 데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진천 주민들과 국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1

법무부는 이들에게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1회 체류기간이 5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학업에 제한이 없다. 심사를 거쳐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다.



1.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 직원 및 가족이 8월 27일 군 수송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생활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3.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8월 2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입국절차 중 박범계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4. 진천군 공무원들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위해 성금 823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5.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2

생계비 · 정착지원금 · 교육 등 배려

박 장관은 법령 개정에 대해 “대한민국에 협력했던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개정 작업임은 틀림없으나, 추후 아프간 국의 기여자들 외에도 다양한 사례의 좋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며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아프간인들에 대해 입국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격리기간 중 2차례 더 검사를 시행했다. 또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임시로 생활하는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의료진을 상주시키고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을 파견했다.

임시생활 시설에서는 아프간인들이 원활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프간인 수용 진천 군민에 대한 찬사 응원 이어져

한국의 품에 안긴 아프간인들은 탈레반의 보복 위협으로부터 필사의 탈

출을 이뤄냈다는 기쁨과, 조국을 등진 채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발을 디딘 뒤 기약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막막함이 동시에 엮보였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0명의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용과 관련, 진천군에 응원과 찬사가 이어졌다.

진천군에 따르면 아프간인들의 인재개발원 수용이 확정 이후 진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진천몰’에 주문이 폭주해 월 평균 매출의 3배를 웃도는 1억9천여만원의 성과를 냈다. 아프간인들을 수용한 데 대해 전국의 소비자들이 ‘돈쫄(돈과 혼쫄의 합성어)을 내주자’며 응원 구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혜택을 본 쇼핑몰 입점 업체들은 아프간인을 위해 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고,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와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각각 200만원을 보냈다. 자유총연맹 진천군 청년회는 300만원 상당의 어린이 학용품을 전달했고, 진천 향토기업인 금수실업도 마스크 2만매를 보냈다. 또 진천군 공무원들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위한 성금 823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장**



3



4



5

‘백두산 호랑이’ 태극기 두르고 100년 만에 귀환



1



2

한 평생 조국 해방을 위해 온몸을 바치며 ‘봉오동 전투’ (1920)를 승리로 이끌었던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1868~1943)이 태극기와 함께 고국으로 귀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주년 광복절인 8월 1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월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우원식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국민대표 자격으로 배우 조진웅을 카자흐스탄에 특사단으로 파견했다. 배우 조진웅은 ‘대장 김창수’ ‘암살’ 등 영화에서 김구 선생, 독립군의 역할을 맡은 바 있어, 강인한 독립군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인물로서 국민대표로 선정됐다.

특사단은 8월 14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고려인협회와 함께 추모 및 제례로 유해를 정중히 모신 후, 8월 15일 오전 대한민국 군 특별수송기(KC-330)를 이용 본국으로 봉송했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출발한 특별수송기는 카자흐스탄 상공을 3회 선회한 후 우리나라로

향했다.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후에는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저녁 7시 3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전투기 6대는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6개 기종(F-15K, F-4E, F-35A, F-5F, KF-16D, FA-50)을 모두 하나씩 투입해 구성했다. 청와대는 “1921년 연해주 이주 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예우로 맞아… 온라인 추모공간도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저녁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김영관 애국지사과 함께 분향, 묵념을 통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정중히 맞이했다. 크즐오르다 현지에서 유해를 모셔 온 특사단도 함께 자리했다.

김영관 애국지사는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 6·25전쟁에도 참전해 1952년 화랑무공훈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과 자유 수호의 산 증인이다.

홍 장군의 유해는 군악대 성악병의 독창 ‘올드 랭 사인’과 함께 의장대의 호위 속에 특별수송기에서 옮겨졌다. 노래 ‘올드 랭 사인’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에 작가 미상의 가사를 붙인 곡으로 1896년 11월 독립운동정초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합창하기 시작하면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국가처럼 불리던 노래로, 1943년 타국에서 광복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준비했다.



3



4



5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국가보훈처 차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경찰의 호위 아래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8월 16~17일 이틀간 온·오프라인 국민추모제를 실시했다.

앞으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 유해 임시안치소를 마련하고 현충탑 앞에는 추모 제단을 마련해 누구나 선착순으로 현장 추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동시 추모객 수를 제한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립운동 단체의 경우 예약도 가능해 더욱 많은 국민의 추모가 예상된다. 또 국가보훈처 누리집에 '추모 페이지'를 열어 온라인 헌화·분향 및 추모의 글 남기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장군의 귀환, 위기극복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안장식에서 “홍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력해 준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군을 이곳에 모시며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군의 불굴의 무장투쟁은 강한 국방력의 뿌리가 됐다”며 “1천800t급 잠수함 홍범도함은 동해 앞바다를 지키고 있고, 대한민국은 종합군사력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자주국방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군의 묘역 관리 등 고려인 사회의 자부심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 마련된 국민분향소에는 16~17일 이틀간 직접 참배객과 승차 참배객을 합쳐 총 2천845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되는 온라인 추모 사이트에도 누적 6

천400여건의 감사와 추모의 글이 게재됐고, 보훈처 SNS에 게재된 홍범도 장군 사진과 영상은 누적 조회수가 100만회에 달했다.

보훈처는 유해 봉환 뒤에도 카자흐스탄 현지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계속 보존·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州) 정부측과 홍범도 장군의 현지 묘역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평양에서 태어난 홍범도 장군은 일제 치하에서 의병투쟁에 몸을 던졌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까지 올라 간도와 연해주에서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며 일본군을 토벌했다. 홍 장군은 1937년 옛 소련 스탈린 정권의 한인 강제이주정책으로 크즐오르다로 이주해 현지에서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8월 17일 봉오동 전투 전승 제101주년을 계기로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중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다. **창**

1. 독립기념관은 서거 후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생전 미공개 영상과 사진 등 16점을 17일 공개했다.
2. 청와대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왼쪽부터 사망증명서, 훈장, 영정, 묘역 분토, 고려극장 사임서.
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하관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에 묵념하고 있다.
4. 국립대전현충원에 마련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국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5.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홍범도 장군 묘역 모습.



이영희 세계국제결혼여성총聯 회장… “각국에 지회 확장” “한민족 정체성 갖춘 당당한 글로벌 여성 단체 될 것”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의 모임인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는 신입 회장에 이영희 자문위원이 선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회장은 9월 9~12일 샌프란시스코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월드킴와 창립 15주년 기념 제2차 차세대 리더십 콘퍼런스' 행사에서 제8대 수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15년 동안 일궈놓은 단체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각국 지회를 확장하고, 지회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해 단체가 명실 공히 국제적인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2006년 출범한 월드킴와(World-KIMWA)는 미국 17개 지부를 포함해 세계 16개국에 37개 지부를 두고 있다. 매년 한 차례씩 친정인 고국에 모여 회원 간 네트워킹을 다지고 다민족 사회에서 정체성 확립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대회를 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 회장은 “회원 자녀들에게도 어머니 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한민족 정체성 함양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당당한 글로벌 여성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그는 한양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에 이민했다.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2006~2017년 LP 커스터디얼 & 서플라이의 최고경영자로 일했다.

1994년 네브라스카 한인회장을 시작으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사무차장, 부회장, 제 11대 중서부연합회 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지회장, 미주강원도민회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맡아 동포사회에 봉사했다. 현재 미주한인재단 전국 이사장을 맡고 있다. 월드킴와 이사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최근 샌프란시스코 총본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에 추대됐다.

사할린 한인 전염병 전문가, 러시아 명예훈장 수훈 이영호 사할린주 위생역학센터 포로나이스크 지부장

러시아 사할린주 위생역학(전염병 연구)센터의 포로나이스크·마카로프·스미르니흐 지역을 담당하는 이영호(53) 지부장이 사할린 설립 75주년을 맞아 러시아 명예 훈장을 받았다.

이 지부장은 극동 연방 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예브 러시아 연방 부총리로 부터 감사장도 받았다. 그는 사할린 지역의 발전과 성취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다른 29명의 사할린 주민과 함께 훈장을 받은 것이다.



일제 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징용돼 탄광에서 일한 아버지와 요리사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는 이르쿠츠크 국립의대를 졸업한 뒤 사할린주 전염병 감독청 공공위생과에서 근무하다 마카로프 구역 위생전염병연구센터 부센터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2004년 포로나이스크 센터 부지부장(부수석 의사)을 지낸 후 이듬해 기구 개편으로 포로나이스크·마카로프·스미르니흐 3구역을 담당하는 지부장에 임명됐다.

지역 위생전염병연구센터는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 원인을 규명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직업병 발생과 확산 원인 조사한다. 또 주민 위생과 역학 복지를 보장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지부장은 “지난해 12월에는 세균실험실 내 특별 위험 감염 연구실을 열었다”며 “이곳에서 코로나19 진단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사태를 맞아 테스트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원 연수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밝히며, “저를 포함한 3명이 유즈노사할린스크 특수 위험 감염실험실에서 교육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자 삶, 영화에 담은 세실리아 강 감독 보편적인 ‘이민’ 이야기로 공감 끌어내… “이야기꾼으로 살 것”

남미 아르헨티나에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로 평단의 주목을 받은 신예 한인 감독이 있다. 한인 2세인 세실리아 강(36) 감독은 인터뷰에서 “정체성 형성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인 부모를 둔 아르헨티나 국적자로서 서로 다른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아르헨티나에 이민 온 이듬해인 198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강 감독은 일찌감치 영화를 향한 열정을 발견하고 아르헨티나 국립영화실험제작학교(ENERC)에서 공부했다.

2015년에는 단편 ‘비디오게임’이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K플러스(전체관람가 이상 어린이·청소년 영화) 부문 후보에 오르며 아르헨티나 안팎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두 아르헨티나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이 단편으로 강 감독은 전 세계 30여 개 영화제에 초대받았다.

강 감독이 아르헨티나 한인사회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첫 장편인 다큐멘터리 ‘내 마지막 실패’에서부터다. 친언니 카탈리나와 어릴 적 미술 선생님이었던 김란 아르헨티나 김윤신미술관장을 통해 아르헨티나 한인사회 내 여성들의 삶과 고민을 그렸다.

강 감독은 “한인들의 이야기지만 ‘이민’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뤄 아르헨티나 관객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제작 막바지 단계인 차기작 겸 첫 장편 극영화는 강 감독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장남’이다.

강 감독은 이야기꾼으로 살고 싶으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질문을 던지게 하고,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



“한국이 김치 종주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김치는 우수한 건강식품”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처리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이후 높아진 김치 인기와 더불어 중국이 ‘김치 종주국’이란 주장을 펼치며 논란을 일으킨 시점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스앤젤레스(LA) 지사는 매년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로 지정해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김치의 날’ 결의안은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치의 역사 및 건강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 김치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우수한 공급원인 동시에 면역력 향상 효능도 가진다는 사실도 모두 담겨진 것이다.

최석호 주하원의원 발의, 한식세계화협회 지원

결의안은 한국계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 새런 쿼크-실바 주하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6일 LA한국문화원 등 12개 한인 단체와 협력해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김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2012~2019년 비즈니스 리뷰 사이트 ‘옐프’에서 한국 식당 검색이 34% 상승했다는 사실이 들어있다. 또 김치는 비타민 A, C, K가 함유됐으며 뇌졸중, 암, 당뇨병,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치는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발효 채소로는 유일하게 국제식품으로 공인된 내용도 명시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김치의 날’인 11월 22일은 배추와 무 등 주재료에 소금과 양념 채소, 젓갈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어우러져 스물두 가지 효능을 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김치 산업 진흥, 김치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11월 22일을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로 제정했다. 지난해 2월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11월 22일로 정해졌다. 해당 날짜는 11월의 숫자 ‘1’처럼 김치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 ‘22’ 가지 효능(22일)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인들은 이 날을 전후로 한 시기에 김장을 담았다. 입동(11월 7~8일)부터 얼음이 열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소설(11월 22~23일) 전후를 적기로 여겨 왔다.

결의안 통과에 앞장선 최 의원은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해 ‘김치의 날’을 기념한다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중국이 김치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바로 잡고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임을 미국에 알리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올해 초 중국 유명 유튜버 리즈치는 김장을 하고, 김치찌개 끓이는 영상을 올리며 ‘중국 음식’이



2

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이 김치를 '한국 파오차이'라고 부르며 김치 기원을 왜곡하고 있지만 파오차이가 단순한 '절임채소'를 뜻하는 반면 김치는 '발효식품'이다. 김치는 1만 마리에 그쳤던 유산균 수가 발효과정을 거치며 1억에서 10억 마리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주도(洲都) 새크라멘토서 김치 홍보·시식 행사

한편 이날 주청사 건너편 하얏트 리젠시 새크라멘토 호텔에서 의회 관계자들과 지역 사회 인사들을 초빙, 김치에 대해 알리는 홍보 행사도 함께 열렸다.

행사는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피터 양 대상 종가 대표, 이전일 CJ푸드 대표, 임종택 남가주 한식세계화협의회 회장, 제인팍 자연나라 수석이사, KBI유상테크, 한국어교육재단, 유병주 KP플라자 대표, 조현포 블루하우스 대표 등이 참여해 김치와 한식, 한국 먹거리 등의 문화를 소개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 통과를 위해 수고해준 세계김치연구소,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미서부 한식세계화협의회 외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사장은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세계 식품 시장에서 김치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신남방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알려, 올해 1억8천만 달러 김치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상수 샌프란시스코 한국 총영사, 박경재 LA 한국 총영사 등이 나서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제1회 캘리포니아 '김치의 날'인 오는 11월 22일 LA에서 김치 만들기 체험, K-푸드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치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결의문 채택 이후 참석자들을 상대로 김치만들기 시연을 하는 등 한국의 김치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선보이며 '김치의 날' 제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단체 외에도 북가주 한인 단체장들과 새크라멘토 지역 한인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했다. **장**



3



4



5

1.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다. 사진은 '김치의 날' 결의안 처리를 기념하는 김치 홍보 행사.
2.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처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3. 샌프란시스코 주재 각국 총영사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던 '김치 체험'.
4.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아카데미 시의 웨스트필드 센터아니타 소품몰에서 개최한 'K-푸드 페어 인 (in) LA'.
5.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LA에서 현지인에게 한식을 알리는 행사를 열어 김치를 홍보하고 있다.

‘한상 대부’ ‘미주한인사회 기부왕’ 홍명기 이사장 별세

‘글로벌한상드림’ 설립해 장학사업 · 해외 취업에도 공헌

‘세계 한상들의 대부’, ‘미주한인사회 기부왕’으로 불리는 홍명기 ‘M&L 홍 재단’ 이사장이 지난 8월 18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마린다 메디컬센터에서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1954년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정착해 페인트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이후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박차고 나와 51살의 늦은 나이에 창업해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대표적인 한상(韓商)이다.

산업 · 건축용 특수도료를 개발하고 이를 생산하는 ‘듀라코트’를 설립해 30년 만에 연 3억 달러(3천51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회사를 세계 특수페인트 시장 ‘톱 5’ 반열에 올렸다.

고인은 사업 성공 비결에 대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애국 · 애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면서 “한국인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약속은 꼭 지키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사업이 절로 번창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2001년 사재 1천만 달러(117억 원)를 털어 ‘밝은미래 재단’(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딴 ‘M&L 홍 재단’의 전신)을 설립하고 교육과 장학사업을 펼쳤다. 특히 폐교 위기에 처한 남가주 한국학원을 살려냈고,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을 비롯해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LA 대한민국민회관 복원, ‘전쟁영웅’으로 불리는 김영옥 대령 현양 사업 등 재미동포사회 숙원 사업 해결에 적극 나섰다.

듀라코트를 수십억 달러에 매각한 고인은 M&L 홍 재단을 활용해 기부를 이어갔다.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 256만 달러(30억 원)를 비롯해 모교인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



홍 회장은 2016년 자신이 이끄는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주도해 안창호 선생이 190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러버사이드에 세운 최초 한인촌을 시가 사적지로 지정하게 했고 선생의 동상을 다시 세우기도 했다.

스(UCLA)에 200만 달러(23억 원), LA 동부 라시에라 대학 100만 달러(11억 원),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37만 달러(4억3천만 원) 등 거액을 쾌척했다.

고인은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주도하면서 리딩 CEO(최고경영자) 포럼 공동의장을 맡아 국내 청년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해외 취업 지원 등의 사업에도 앞장섰다. 한상 사회공헌재단 ‘글로벌한상드림’을 설립해 이사장을 맡았고, 출선해 28만 달러(3억3천만 원)를 기부했다. 세계 한상들 사이에서 ‘대부’ 역할을 했던 고인은 최근 리딩 CEO 포럼 명예 공동의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고인은 “기부문화는 선진국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성공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나눔을 할 수 있다면 성공한 보람을 몇 배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고인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장]

日 방해 맞서 가상소녀상 개발... 한인2세 “100만 곳에 세우자”

독일 강호진 씨 “젊은 세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잊지 말아야”

“**평**화의 상징인 가상소녀상 ‘웹아리’가 전 세계 100만 곳에 세워지는 게 꿈입니다.”

독일 한인 2세 강호진 씨는 인터뷰에서 “어떤 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필요할까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정해 세움으로써 평화가 조금이라도 확산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낮에는 디자인회사에 다니는 그는 퇴근 후 밤과 주말에 시간을 쪼개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가상소녀상 개발에 나서게 됐다. 이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집요한 방해공작 속에 철거 위기에 내몰리면서 품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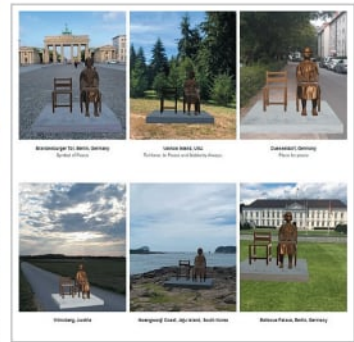
일본의 집요한 방해 공작 속에 철거된다고 하니까 매우 황당했다.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너무도 부당한 상황에서 예술의 자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했다”면서 “결국 코리아협의회에서 4명이 뜻을 합쳐 가상소녀상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개발한 가상소녀상은 현재 버전2로,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다. 가상소녀상(<https://uagallery.de/webari2>)은 큐아르(QR)코드나 링크를 통해 웹상에서 접근해 카메라를 활용,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세울 수 있다.

가상소녀상을 세운 뒤 사진을 찍어 갤러리에 올리면 이를 모아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해시태그 #PLACEFORPEACE도 활용할 계획이다.

가상소녀상은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가상자매로 ‘웹아리’로 불린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유치하다”고 말했다.



지구촌 곳곳에 세워질 가상 소녀상 ‘웹아리’

이어 “독일 학교 역사수업에서는 나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피해를 봤는지 해마다 배운다”며 “그렇게 인정해야 정부도 문화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소녀상을 전 세계 곳곳, 평화가 필요한 곳에 세워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위안부 피해를 본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시는데, 젊은 세대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수요시위 1천 회를 기념해 처음 세워졌다. 이후 지난 10년간 국내 82곳, 해외 16곳에 세워졌다.

독일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도 베를린 미테구 모아비트 거리에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9월 25일 소녀상을 설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집요한 방해에 지난해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받았지만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미테구의회도 지난 11월 7일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

‘아쉽지만 잘 싸웠다’… 日 교토국제고, 고시엔 결승 문턱 분루

박경수 교장 “큰 성과… 응원 동참 재일동포·한국 국민에 감사”

재일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와 일본 고교 야구왕으로 등극하는 꿈의 실현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교토국제고는 8월 28일 효고현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03회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 준결승에서 나라현을 대표해 출전한 지벤학원고에 1대 3으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여름 고시엔에 처음 출전한 교토국제고로서는 파죽의 3연승을 거두

며 준결승까지 올랐지만, 결승 무대에는 서지 못하게 됐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고교야구 대회인 고시엔은 1924년 지어진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 홈구장의 명칭이기도 하다.

이 구장이 완공된 해가 갑자년(甲子年)이어서 고시엔(甲子園)



일본 여름 고시엔 준결승에서 재일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는 지벤학원에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으로 명명됐다.

매년 봄과 여름 2차례 이곳에서 열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대회는 각각 ‘봄 고시엔’과 ‘여름 고시엔’으로 불린다.

교토국제학원이 운영하는 교토국제고는 올 3월 현재 정원 131명의 소규모 한국계 학교다. 일본인 93명, 재일 교포 37명이 재학 중이고, 이 중 40명(전원 일본 국적)이 야구단 소속으로 뛰고 있다고 한다.

박경수 교토국제고 교장은 “8월 한 달간 우리 학교 야구 시합에 응원과 성원으로 동참해 주신 재일동포와 한국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

브라질 상파울루 코리아타운 ‘한국 문화의 날’ 청사초롱 단장

2주간 매일 저녁 점등… “코로나 함께 극복” 메시지도 담아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에 형성된 코리아타운이 단아한 청사초롱 불빛으로 장식됐다.

상파울루 총영사관은 제76주년 광복절과 브라질 ‘한국 문화의 날’을 기념해 8월 13일 저녁(현지시간) 코리아타운의 주요 거리를 600여 개의 청사초롱으로 밝히는 행사를 개최했다.

상파울루시는 2010년 1월 조례를 통해 봉헤치루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했으며, 2017년 4월에는 매년 8월 15일을 ‘한국 문화의 날’로 정했다.

이날 행사는 코리아타운의 복합시설인 K-스퀘어에서 벨기에·인도·멕시코·스웨덴 총영사 등 외교단, 상파울루 주·시 정부와 의회, 한인 동포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리셉션과 청사초롱 점등식으로 이어졌다.



상파울루 총영사관은 최근 코리아타운의 주요 거리를 600여 개의 청사초롱으로 밝히는 행사를 개최했다.

총영사관은 청사초롱 설치에 맞춰 주시사와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를 영상 편지 형태로 상영해 한인사회와 현지 주민들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나누는 기회로도 만들었다.

황인상 총영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사회에 희망의 불빛이 되고 브라질 국민에게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회가 되

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셉션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청사초롱을 든 채 코리아타운 거리를 행진했으며, 이어 한국 음식점에서 만찬을 즐기며 한국 문화와 한식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업소 등에 설치된 청사초롱은 9월 초까지 매일 저녁 불을 밝혔다.

한인 23명 입원실 내준 인도네시아 병원에 '한식 도시락'

코로나19 확진자 도움 제공한 자카르타 병원에 감사 표현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입원이 어렵던 시기에 한인 20여명에게 병상을 제공한 병원 직원들이 색다른 선물을 받았다. 한국 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외식업협의회는 최근 한식 도시락을 해당 병원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감사를 표했다.

자카르타의 야르시(Yarsi) 병원은 한인들에게 고마운 병원이다. 23명의 한인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난 6~7월 자카르타의 코로나19 병상 점유율이 90~100%라서 빈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을 때 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야르시병원은 한인 확진자용 병실을 별도로 확보해 제공했다. 이에 대사관과 한식당 사장들로 구성된 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외식업협의회가 병상을 제공한 병원 직원들에게 한식 도시락을 나눠주며 감사를 표했다.

식업협의회가 한국 농산물·식자재를 활용한 도시락 총 1천100개를 마련해 네 차례에 걸쳐 야르시 병원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한국 대사관은 한식 도시락에 대해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와 ‘감사’의 표현이며, 한국 음식과 음식 재료가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식업협회 전명현 회장은 “한식 도시락 나눔 행사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의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6월부터 발생한 한인 감염자는 1천명이 넘고, 사망자는 한국 이송 후 숨진 인원까지 더하면 2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폴란드 '코리안 푸드' 행사 성료

한인회 주최 현지인 3만5천명 참가, 김치 체험 인기

폴란드 한인연합회(회장 남종석)는 9월 4~5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국 음식 축제에 3만5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남종석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진 인터뷰에서 “‘코리안 푸드 워크앤드’ 행사 4일에는 1만5천명, 5일에는 2만명이 각각 몰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K-팝과 한국 음식 등 폴란드에서 부는 한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AK 그라나트 광장에 마련된 10개의 부스에서는 김밥, 떡볶이, 김말이, 주먹밥, 잡채, 만두, 어묵, 유자차, 컵라면, 식혜 등 한국 음식을 선보였다.

폴란드인들은 막걸리, 소주를 마시면서 한국 음식을 곁들였고, 가족단위로 찾아온 어린친구들은 맛동산, 새우깡, 김스낵, 고래밥, 칸초 등 한국의 과자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폴란드 바르샤바 AK 그라나트 광장에서 열린 한국음식 축제 장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 담그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에서 특허로 개발된 진공 김치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김치를 저장하는 방법도 알려졌다. 김치반으로 만든 주먹밥은 참가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재료를 조달하지 못해 부스를 일찍 철수하는 일도 발생했다. 식품 코너에서는 다양한 과자와 라면, 짜파게티, 3분 카레, 복숭아 막걸리, 바나나 막걸리 등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한다. 폴란드내 김치 마니아들은 이

들동안 포장김치 400kg을 구매했고, 김치항아리도 샀다.

현지 여성 6명으로 구성된 K-팝 그룹 ‘휘스퍼’는 하루 3차례씩 공연을 펼치면서 축제 분위기를 북돋웠다. 한국 유학생과 한국말을 배우는 폴란드 학생 10여 명이 행사 도우미로 봉사했고, 선미라 폴란드 한국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도 행사에 참가해 격려했다.

애틀랜타 총격 한인 희생자 유족 “슬픔 딛고 재기” 다짐

사건 6개월 맞아 심경 밝혀... 혐오범죄 방지 기금 조성에 동참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 발생 6개월을 맞아 한인 희생자 유족들이 슬픔을 딛고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희생자 현정 그랜트(51) 씨의 아들 랜디 박 씨와 에릭 박 씨는 9월 16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범죄 피해자 교육기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혔다.

그랜트 씨 등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인근 스파, 마사지숍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사망했다. 총격범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롱(22)은 7월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 형제는 사건 발생 후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Go Fund Me)에 생활비 기부를 요청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뜨거운 반응에 약 3백만 달러(약 35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희생자 유족인 에릭 박(왼쪽부터), 랜디 박, 제이슨 박 변호사, 크리스토퍼 찬 기금운용위원, 새라 해밀턴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 박병진 전 조지아 북부지역 연방 검사장.

이에 대해 박 씨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저희도 이제 일상과 학업에 복귀해 돌아가신 분들이 바라던 삶을 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와 조지아 아시아태평양계 변호사협회가 만든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범죄 피해자 교육기금' 활동의 일환으로 열렸다.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조지아 북부지역 연방 검사장을 지낸 박병진 변호사,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윤 에팅거 서던 컴퍼니 가스 법률 부 고문 등 한인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박병진 변호사는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맞서 싸워야 후손들이 외국에서 온 이방인으로 취급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인 과학자들, 꽃가루 이용한 3D 프린터 잉크 재료 개발

싱가포르 난양공대 조남준 교수팀 “피부 치료에도 도움”

한인 과학자들이 꽃가루를 이용한 친환경 3D 프린터 잉크 재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 따르면 싱가포르 난양공대 조남준 교수팀은 최근 해바라기 꽃가루로 3D 프린팅 잉크 재료를 개발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알칼리성 용액에 꽃가루를 6시간 동안 반응시켜 꽃가루 마이크로겔 입자를 형성한 뒤, 알긴산이나 히알루론산과 혼합해 최종적으로 꽃가루-하이드로겔 혼합 잉크를 만들어냈다. 꽃가루 기반 바이오 잉크는 현재 생체의학 분야 3D 프린팅(바이오 프린팅)에서 쓰는 잉크 대신 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꽃가루 기반 3D 프린팅 잉크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생체 조직인 ‘스키폴드’를 인쇄한 결과 조직



싱가포르 한인 과학자들, 꽃가루 이용한 3D 프린터 잉크 재료 개발.

재생에 필수적인 세포 부착과 성장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조 교수는 “꽃가루 기반 잉크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성,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큰 성과”라며 “크기, 모양, 표면 특성이 다양한 꽃가루 종이 수없이 많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친환경 3D 프린팅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논문의 공동 저자인 난양공대 화학·생물의공학대학 송주하 조교수는 “상처 드레싱 패치나 안면 마스크와 같이 인간의 피부 윤곽에 정확히 맞는 유연한 막 생성에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펄서널 머티리얼스(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서 이준열사 추모식 열려

지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의 114주기 추모식 및 광복 76주년 기념식이 8월 13일 헤이그 시내 이준열사기념관에서 열렸다고 기념관 측이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연두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비롯해 안 반 자넨 헤이그 시장, 이기항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원장, 송창주 이준열사기념관장, 교민들과 네덜란드 의회 외교를 위해 헤이그를 방문한 국회 대표단 조웅천·이현승 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이 열사의 애국심과 넋을 기렸다. 114년 전 일본의 갖은 방해로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 열사는 호소문을 언론에 발표해 항의하는 등 연일 애통해하다가 당시 머물렀던 드용호텔에서 순국했다.



뉴욕한인회-뉴욕한국교육원, 한국어강의 개설

뉴욕한국교육원(원장 이주희)과 뉴욕한인회(회장 찰스 윤)는 8월 26일 미국 뉴욕한인회 사무실에서 한국어 강의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뉴욕한인회는 9월 18일부터 7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포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역사, 생활한국어 및 실용한국어 등 초·중·고급 과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 협약은 찰스 윤 회장이 차세대들의 정체성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어 보급 및 발전을 위해 교육원의 지원을 요청해 성사됐다.

재일민단, 동포 대상 코로나 백신 단체 접종

일본 수도 도쿄 지역 등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를 위한 코로나19 직역(단체) 접종이 이뤄진다. 직역 접종은 일본 정부가 1천 명 이상인 직역(단체) 단위로 백신을 공급해 접종토록 하는 것으로,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도입됐다. 재일동포 대표 조직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단장 여건이)는 9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모더나 백신으로 간토(關東) 지역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1, 2차 단체 무료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16세 이상이 대상으로 접종은 토·일요일에만 미나토구 소재 민단중앙회관 8층에서 이뤄진다.



러시아한글학교협,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회장 하중혁)는 8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6일부터 러시아 지역내 한글 학교별 예선과 2차 본선, 3차 결선을 거쳐 모두 9명이 선발됐다. 결선에 진출한 학생들에게는 협의회 회장상을 비롯해 한국국제교육원 원장 상과 부상, 부문별 1위를 배출한 지도 교사에게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명의의 우수지도자상을 수여했다. 행사에서는 사라토프한글학교 교사의 판소리 공연과 모스크바 한국문화한글학교 금강중창팀의 합창, 학생들의 한국 노래 공연 등도 선보였다.

충북대 학생들, 사할린 동포 애환 담은 책 발간

충북대는 러시아어언문학과와 정대훈(4학년) 학생 등 7명이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의 애환을 담은 '사할린, 더 메모리'를 최근 출판했다. 충북 오송에는 2008년부터 사할린 동포들이 터를 잡기 시작해 현재 그들의 가족 53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학생들은 사할린 동포들이 타향살이를 했던 설움, 국내에서 정착하는 과정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이 책에는 동포들의 애환을 담은 사연과 함께 다양한 사진도 실었다.



남아공 한인회 '코로나 온라인 의료설명회' 열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회장 손춘래)는 8월 27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의료설명회'를 주남아공 한국대사관(대사 박철주)과 공동으로 열었다. 김원형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김아름 인하대 국제진료센터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극복, 코로나19 일반 상황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동포는 "신뢰할 수 있는 고국의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정확한 지식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대사관과 한인회, 인하대병원 의료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t.or.kr)로 보내주세요

인도네시아 진출은 대기업만?... 스타트업도 '수두룩'

온라인 교육 · 환경 부문 한국 스타트업, 시장 두드리기



한상 기업 이노사이클 테크놀로지 자회사는 회수기에 플라스틱 빈 물병 넣으면 1kg당 3천 루피아 제공하고 있다(왼쪽). 인도네시아판 '아이엠스쿨' 앱 사용하는 어린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인도네시아 시장을 뚫어보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발간한 '한인 100년사'를 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1960년대 후반 한국남방개발(코데코), 코린도가 목재사업을 시작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 신발·봉제·섬유업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980년대 말 삼성전자·LG전자, 2000년대 포스코, 롯데그룹, 한국타이어 등이 진출했고 내년 1월부터 현대자동차가 서부 자바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한다.

KCC글라스가 올해 5월 중부 자바 바탕산업단지에 3억 달러 규모 공장을 짓는 첫 삽을 떴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손잡고 서부자바 카라왕에 11억 달러 규모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올 4분기 중

착공한다.

자카르타 외곽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유화단지를,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고,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정유 공장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이런 유명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만든 여러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인도네시아 진출을 꾀하는데, 특히 온라인 교육과 쓰레기 재활용 부문이 눈에 띈다.

사이버한국외대 부총장을 지낸 조장연 교수가 인도네시아민족대학교와 손잡고 지난해 인도네시아 최초의 사이버대인 '아시아사이버대학교'를 출범했다.

또, 한국 폴리텍1대학 학장을 지낸 정봉협 씨가 대표인 교육 스타트업(IEN)은 한국 학교들이 사용하는 알림장 앱 '아이엠스쿨'을 가져와 3천207개 학교에 무료로 보급했다. 회사는 국립 인도네시아대와 손잡고 최초의 온라인 국가자격 과정

을 9월부터 개설했다.

정 대표는 “온라인 국가자격 과정은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며 “인도네시아 전역의 많은 교육생이 동시에 수업받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노하우”라고 말했다.

환경 부문 스타트업도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양오염원 배출국으로 꼽힐 만큼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

인도네시아에 상장된 한상기업인 이노사이클 테크놀로지 그룹의 자회사 '플라스틱 페이'는 수도권 300대의 플라스틱 회수기에 빈 플라스틱 물병을 넣으면 1kg당 3천 루피아(244원)를 고페이, 오보 등 전자머니로 준다. 이 물병으로 부직포와 섬유를 생산한다. 플라스틱페이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초청한 '인도네시아를 깨끗이, 우리의 역할' 웨비나에서 6명의 현지 장관과 함께 연사로 초청받았다. **장**

백신 못맞던 이집트 한인들, 대사관 요청으로 ‘특별접종’

“한인 200여 명, 현지인 조력자 340여 명 AZ 백신 맞아”

“백신 접종을 못 해서 불안했었는데 이제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집트에 거주하는 한인 대부분이 현지 대사관의 도움으로 백신 1회차 접종을 마쳤다.

이집트 보건부는 최근 카이로 남쪽 베니수에프에 있는 삼성전자 생산공장, 뉴카이로 한국학교에 이어 카이로 시내 한인회 사무실에서 한인 사회를 위한 특별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현지 한인 주재원 등 동포 200여 명은 물론 이들과 함께 일하는 현지인 340여 명이 이번 특별 접종을 통해 백신을 맞았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제품이 배당됐다.

1회차 접종을 마친 교민 추지수(30) 씨는 “백신 접종을 못 해 불안했었는데, 이제 조금 안심이 된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인 김상학(48) 씨도 “여러 차례 이집트 보건부 사이트를 통해 접종 등록을 했지만,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특별 접종을 통해 백신을 맞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인사회를 위한 특별 접종은 현지 한국대사관(대사 홍진욱)의 적극적인 요청을 이집트 정부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그동안 한인들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현지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접종을 하지 못했다.



이집트 카이로 시내 한인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다리는 한인들(왼쪽). 할라 자예드 이집트 보건부 장관(왼쪽)에게 감사패 전달하는 홍진욱 주이집트 대사.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1억이 넘는 이집트의 백신 1회차 접종률(8월 25일 기준)은 5% 수준이다.

한인들은 지난 4월부터 이집트 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접종 신청을 했지만, 몇 달간 접종 통보도 받지 못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야 일부 한인들이 접종 통보를 받았지만, 접종 장소가 카이로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배정돼 난감한 상황이었다.

주이집트 대사관은 할라 자예드 이집트 보건장관에게 이런 애로사항을 직접 전하고 협조를 요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특별접종 약속을 받았다.

또 한인회(회장 조찬호)는 한인 커뮤니티 내 백신 수요 조사를 하고 접종 준비

를 하는 등 손을 보았다.

홍진욱 대사는 “한인사회에 대한 특별 접종은 이집트 내 한인사회의 모범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양국 간 우호관계 등이 고려된 결과여서 뜻 깊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9월 12일 이집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해 준 할라 자예드 이집트 보건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5월 현금 2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고 11월에는 샤르키아주의 살히야 공공병원에 CT(컴퓨터 단층촬영) 스캐너, 산소탱크 등 의료 기자재를 전달했다. 또 12월에는 총 50만 달러 규모의 진단 키트와 마스크 등도 지원했다. [장]

세계 한인 정치인들 모국서 한반도 평화 위한 역할 모색



좌측부터 이영근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박나라 미국 산타클라라시 시의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하재성 영국 킹스턴 지방의회 의원, 디카이 다미르 카자흐스탄 탈디코르간시 시의원, 전후석 영화감독.

전 세계 12개국 65명의 현직 및 차세대 유망 한인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제7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세계와의 조화,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8월 18~1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18일 세계한인정치인협회회장인 썬디류 미국 워싱턴주 하원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은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환영사와 함께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의 축사 영상, 비전을 담은 주제 영상 및 제주 전통 공연으로 이어졌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에 한인 정치인들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 등 동포사회의 관심과 현안에 우리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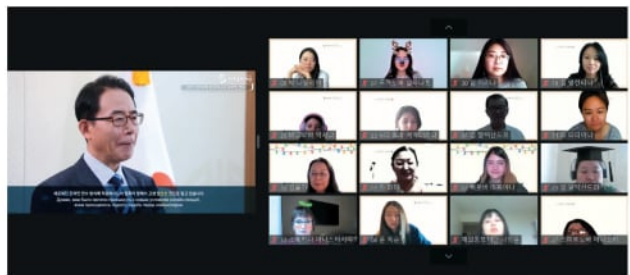
또한 세종연구소의 문정인 이사장이 특별강연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현 정부의 평화전략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한반도 평화 드라마의 주역으로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65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거주국에서의 정치 도전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과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편 제주도에서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한 한인 정치인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주 4.3 평화기념관을 방문해 4.3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도 가졌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인 정치인들이 거주국과 세계에서 역할을 다하고 존경받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영광이다. 인류 공동선에 힘쓰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큰 협력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졸업논문 발표회 온라인 개최



8월 27일 온라인으로 시행된 '2021 CIS지역 한국어교사 연수' 수료식.

재외동포재단은 7월 27일부터 5주간 고려인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2021 CIS지역 한국어교사 연수'를 시행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에서 한글학교 교사 3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매일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능력 제고, 한국어 교수법, 한국 역사·문화 특강을 듣고, 비대면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으로 시행한 본 연수에서는 매주 토요일 비대면 한국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었다. 여기서 행한 전통공예품 만들기, 한국요리 등 실습 프로그램이 연수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8월 27일 수료식에서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임 이리나(러시아, 볼고그라드 세종센터한글학교) 교사는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교수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토요

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문화 체험으로 마치 온라인으로 한국 여행을 한 것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글학교에 현지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한글과 우리 문화의 교육과 확산에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1 CIS지역 한국어교사 온라인 연수'로 교사 전문성 강화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졸업생과 재학생 간 멘토링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8월 24일 졸업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졸업 논문 온라인 발표회.

이번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12명의 졸업생(석사 11명, 박사 1명)과 60여명의 재학생, 그리고 현지 대학교수 6명(초청장학생 출신 5명 포함)이 멘토로서 참석했다.

졸업생들은 자신의 학위논문 개요와 학계 기여도, 졸업 소감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고, 멘토 선배들은 논문에 대한 코멘트와 더불어 따뜻한 격려와 덕담을 전했다.

또한, 사전에 재학생들로부터 받은 졸업 축하·응원 메시지를 졸업생들에게 전달했으며, Q&A 시간을 통해 학업과 일상생활, 진로 등에 대한 재학생 후배들의 다양한 궁금증도 해소해주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초청장학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재외동포 초청장학생들이 보다 큰 비전과 글로벌 코리아너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재외동포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재단은 1997년 설립 당시부터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을 시행해 2021년까지 1천 54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국내 수학을 지원했다. **장**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마이너 필링스 - 이 감정은 사소하지 않다

캐시 박 흥 / 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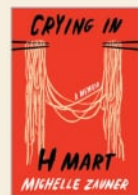
작가는 1965년 미국 이민을 와 한국을 떠나온 가정에서 자랐다. 아시아계 미국인 시인으로 살아가며 '남들에게 좀 더 이해받고 눈에 덜 안보이는 존재'가 되고자 이 에세이를 썼다고 밝혔다. 작가는 이 책의 제목인 '마이너 필링스', 소수적 감정을 이렇게 인식한다. 즉 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발현하는데 집중하기보다, 자신이 겪어온 이민사와 한국의 역사를 짚어가며 그동안 소수적 인종들이 어떻게 연대하며 이어져왔는지를 말한다. 또한, 역사의 실상을 한쪽의 편으로만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이 책을 통해 한국 전쟁, 92년의 LA 폭동 등 이민사의 실상을 알아보자. 그리고 시인의 언어를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따른 예민한 감각과 첨예한 의식을 느껴보자.



H 마트에서의 눈물(Crying In H Mart)

미셸 자우너

한국인의 생일 밥상에는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음식이 있다. 바로 미역국이다. 미역국이 마치 생일 기념의 소재가 된 것처럼, 한국인을 대표하는 일상의 소재들을 담은 에세이가 발간되었다. 작가는 생일이면 함께 미역국을 먹고, 종이스푼으로 조리품을 먹고 지내는 것처럼 한국인이자면 가볍게 다가오는 일상의 소재들을 글로 풀어냈다. 특히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H 마트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의 공간이다. 이 공간을 구성하는 음식들의 집약체로,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점이 바로 H마트인 것이다. 한국계 작가가 정체성과 유대감을 소소한 일상의 소재로 찾아가는 모습을 읽어보자.



경계를 넘는 한인들이 이주, 젠더, 세대와 귀속의 정치

김민정(역음) / 한울아카데미

디아스포라의 연구는 혈연중심으로 시작하기보다, 국가 경계를 넘어 퍼져온 맥락을 파악해야 이주의 현실과 현재의 효과들을 이해할 수 있다. 재외 한인에 대한 연구도 혈연 중심의 공동체를 찾기보다, 국가, 국경을 넘으면서 경계에 있던 한인들의 사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사회의 구조와 개인을 연결하여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은 현재 한인들이 마주한 젠더와 세대 간 이슈인 다문화 한국 사회를 조명하고, 이 사회에서 새로 구성된 가족구성원이 사회와 국가에 어떻게 연결되고 재생산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김정숙 여사 한인 여성 격려

한인 여성의 미래와 비전을 조망하기 위한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가 8월 30~31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6개국 310여 명이 참가해 지구촌 한인 여성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영상을 통해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축사를 전하고 있다.

의 성평등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숙 여사는 개막식 영상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K의료와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다. 'K'를 덧붙인 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돌아봤다.

김 여사는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미나리는 어디에 있어도 알아서 잘 자란다"는 대사를 인용한 뒤 "한인 여성 리더들도 평범한 것들 속에서 희망을 싹틔워 왔다"고 격려했다.

이어 주스리랑카 미국 대사로 지명된 줄리 J. 정(한국명 정지윤) 전 미국 국무부 서반구 차관보 대행이 25년간 쌓은 국제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조 강연을 했다.

참가자들은 이를 간 코로나19 사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도 머리를 맞댔다.

외교부·KOICA, '서울 ODA국제회의'서 글로벌위기 해법 공유

한국국제교류재단(KF)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우리나라 공공외교 역사를 담은 특별전이 서울 중구 수하동 KF갤러리에서 8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린다.

KF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롭고 다양한 '이음'(connection)을 창조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우선 30년간 공공외교의 영역을 개척해 온 발자취를 아카

이브로 소개한다. 1990년 전후로 등장한 '국제화-세계화' 흐름에 발맞춰 탄생한 KF의 활동과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사진·영상 등 기록물로 알린다.

사람과 사람, 국가와 세계, 과거·현재·미래, 현실과 가상 등 다양한 관계와 연결의 의미를 예술로 표현해 KF의 비전을 알리는 전시도 함께한다.

KF의 e-스쿨 한국어 강좌에 출연한 아이돌 BTS의 한국어 교재와 한국의 발전을 도왔던 미국 평화봉사단이 KF에 보내온 서신 등도 공개한다.



KF, 창립 30주년 기념 공공외교 역사 담은 특별전 개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9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4회 서울 ODA(개발협력)국제회의'를 열어 글로벌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온·오프 병행으로 열린 회의는 '지식공유를 통한

보다 나은 회복-복원력 있고 환경친화적이며 포용적인 개발'을 주제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개발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손혁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 위기와 같은 복합적인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지식공유를 통한 상호학습과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수잔나 무어헤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한국이 이룬 지난 70년간의 성과와 변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친 개도국에 희망이 될 수 있다"며 "포용적 디지털 전환이야말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손혁상 KOICA 이사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구촌 그리팅맨의 메시지

2012년 10월 24일,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유명호 작가의 공공설치 미술작품 그리팅맨(Greeting man)이 설치되었다. 글로벌 프로젝트로 세워진 제1호 그리팅맨이다. 당시 MBC 중남미지사장 겸 특파원이었던 필자는 이를 현지에서 영상으로 단독 보도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로부터 유 작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리팅맨을 계속 지켜보고 기록하게 된 것이다.

중견 조각가인 그는 2000년 7월 독일 유학 중, 인사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 아트를 제작했다고 한다. 이를 본 헝크 피시라는 네델란드 작가가 '인사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읽어냈다. 이것은 유 작가에게 그리팅맨이라는 작품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는 영감의 순간으로 다가갔다. 그는 이 때 일상적인 행위인 인사가 깊은 철학적 성찰을 동반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길을 가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면 그때부터 소통이 시작된다. 상대방도 마주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공존과 평화의 메시지가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이 유 작가의 지론이다. 악수는 지근거리 내로 다가와 비무장(非武裝) 상태와 비적대(非敵對) 의사를 확인한다. 그에 비해 멀리서 인사하는 행위는 나그네들의 '안전거리'를 더 연장한다.

다음으로 유 작가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교통하는 운하가 있는 파나마의 파나마시티에 작품을 설치했다. 이어서 에콰도르 카암베에는 적도선을 가운데 두고 그리팅맨이 서로 마주보는 작품을 세웠다. 마치 남반구와 북반구의 두 사람이 서로 인사하는 듯하다. 지구촌 남과 북의 소통과 공존을 표상하는 모습이다.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전 MBC 중남미지사장겸 특파원



이후 그리팅맨은 미국 뉴저지, 브라질 상파울루, 멕시코 메리다 등지로 확장되었다. 초기에 세워진 그리팅맨은 '호모 살루탄스'(Homo Salutans)로서 인사하는 사람 그 자체다. 반면 미국 등 최근의 장소는 한인 또는 한국과의 인연이 많은 곳이다. 자연히 한인 이민사와 연결된다. 소통과 공존의 메시지는 감사와 겸손의 메시지로 확장된다.

특히 1905년 에네켄 이민이 인고의 세월을 보낸 멕시코 메리다, 1963년 근대 이민의 시작지인 브라질 상파울루는 한국 이민사에서 기념비적인 장소다. 브라질의 경우 주상파울루 한국문화원 앞에 조형물로 설치되었고, 멕시코는 메리다시가 명명한 '대한민국로'에 세워졌다. 이곳에 있는 그리팅맨은 지나온 이민 역사에서 현지인에 대한 한국과 한국인의 감사를 표시한다. 말하자면 이들은 '호모 코레아니쿠스'(Homo Coreanicus)가 될 것이다.

유 작가의 그리팅맨 설치 프로젝트는 20만 달러 상당의 비용을 작가가 자비로 부담해 현지에 기증하는 방식이다. 해당 국가에서는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을 제공한다. 높이 6미터에 무게 2톤이 나가는 알루미늄 소재의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려면 무엇보다 작가와 작품의 미학적 메시지에 공감해야 가능한 일이다.

유 작가는 앞으로 베트남 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키리바시 타라와 등지에도 그리팅맨을 설치하는 글로벌 프로젝

트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그곳에서 각각 평화, 감사,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문득 해외에 설치된 그리팅맨에게도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창**

12월 1~9일 '2021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실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오는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1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 소통 역할을 맡아온 동포 언론인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한 연수로 중국,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기자를 초청한다.

10년 경력 내외로 재외동포 언론사 소속 현직 기자, 연수 후 상당기간 재외동포 언론인으로 근무 예정인 자, 관할 공관장 추천자, 재외동포 언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재단 이사장이 선정한 자 등으로 선발하며 한국어 강의 청취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

참가자들은 한국 입출국 및 체류시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들은 언론인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기사 작성·사진 촬영·영상 편집 등 이론 교육과 취재 방법 실습, 역사 문화 체험 등에 나선다. 또 언론사 방문 취재를 진행하고 재외동포재단 행사에 참가해 현장 취재에 나선다.

연수기간 참가자 기획 취재로 재단 사업, 모국 문화, 사회상 등 자율주제를 정해 취재 후 소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참가자들은 연수에 따른 왕복 항공료, 체재비, 숙박비와 보험 가입 등을 지원 받는다.



8월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8월 13일: 재외동포 온라인 한국어 집중연수 개회식
- 8월 17일: 중국동포 찾동
- 8월 18~19일: 세계한인정치인포럼
- 8월 20일: 대륙별 한인총연합회 회장회의
- 8월 27일: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 8월 31일: 연아마틴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 화상회의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